

<스토브리그>를 잇는 또 하나의 기대작

라켓소년단



새 월화드라마 <라켓소년단>(극본: 정보훈, 연출: 조영광)이 5월 31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라켓소년단>은 배드민턴계 아이돌을 꿈꾸는 '라켓소년단'의 소년체전 도전기이자, 땅끝마을 농촌에서 펼쳐지는 열여섯 소년·소녀들의 레알 성장 드라마다. 인간미 넘치는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꿈을 좇는 이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슬기로운 감빵생활> 정보훈 작가와 <피고인>, <홍부외과>를 연출한 조영광 PD가 만나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스포츠 드라마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깨고 지난해 <스토브리그>를 성공시킨 SBS가 또다시 주목할 만한 스포츠 소재 드라마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믿고 보는 배우 김상경과 오나라가 묵직한 존재감과 몰입도 높은 연기력으로 <라켓소년단>의 중심을 잡는다. 김상경은 최강 친화력과 녀석을 갖춘 배드민턴부 코치 윤현중 역을 맡았다. 한때는 날고뛰는 국가대표 선수였지만, 지금은 생활체육 강사로 회원들 비위나 맞추며 살아간다. 현중은 해체 위기의 해남서중학교 배드민턴부를 맡게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점차 성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공감대를 불러일으킨다.

오나라는 배드민턴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재 배드민턴 전국 1위인 해남제일여자중학교의 코치 라영자 역을 맡았다. 라영자는 코트 안팎으로 전략과 정치를 포함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카리스마 여장부다. 매서운 눈빛과 말 한마디로 다른 학교 학생들마저 벌벌 떨게 만든다.

탕준상, 손상연, 최현욱, 김강훈, 이재인, 이지원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10대 배우들의 열연도 기대할 만하다. 탕준상은 운동신경과 동물적인 감각을 타고난 '승부욕의 화신' 윤해강 역을 맡았다. 서울에서 야구부원으로 활동하던 해강은 땅끝 마을로 원치 않은 전학을 오게 되고, 크고 작은 갈등과 위기를 겪게 된다. 손상연은 넘치는 에너지와 리더십을 지닌 해남 서중 배드민턴부 주장 방운담 역으로 나선다. 운담은 SNS 팔로어 10만을 꿈꾸는 전국구 관중으로, 화려한 외모와 빛나는 실력을 겸비한 에이스다. 최현욱이 맡은 나우찬은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부원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해결사로 활약한다. 김강훈은 배드민턴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는 '투머치 토크' 이용태 역으로 분한다. 이재인은 해남제일여중 배드민턴부 부원 한세운 역을 맡아 최연소 국가대표를 꿈꾸는 악바리 소녀를 연기한다. 이지원은 해남제일여중 배드민턴부 군기반장 이한솔 역을 맡았다.

<라켓소년단>은 꿈을 향해 달리는 소년·소녀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과 한때는 꿈 많은 소년·소녀였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포츠의 본질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SBS 월화드라마

라켓소년단

어서와, 땅끝마을은 처음이지?



5월 31일 첫방송 | 매주 월화 밤10시 SBS

소셜 동영상 뉴스 원조 비디오머그,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



〈비디오머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4월 29일(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유튜브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통 뉴스 채널이 아닌 디지털 오리지널 뉴스 브랜드가 백만 구독자를 돌파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비디오머그〉는 2015년 2월 9일 국내 최초 동영상 뉴스 채널로 닷을 올린 후 그동안 '보는 것이 믿는 것(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TV뉴스를 넘어선 뉴미디어 저널리즘의 실험을 주도해 왔다. 촛불집회 현장과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순간을 모바일과 온라인 라이브

로 생생하게 전달했고, 평창올림픽과 러시아월드컵의 현장을 〈비디오머그〉만의 시각을 더해 재미와 감동이 있는 뉴스 콘텐츠로 만들어 호응을 얻었다. '응답하라 노량진수산시장 1971-2016' 같은 웹 다큐, 배우 김혜수, 정우성 등이 출연한 '노플라스틱 챌린지' 기획 등 참신한 콘텐츠 제작 시도에도 과감하게 앞서 나갔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한국방송카메라기자상 대상, 2018년 제45회 한국방송대상 '뉴미디어 프로그램 제작상', 2019년 정보문화유공포상 대통령표창 등 굵직한 수상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부터는 〈스포츠머그〉가 〈비디오

머그〉에서 별도 채널로 독립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스포츠 관련 옛 얘기를 풀어내는 '별별스포츠'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다수 생산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디오머그〉는 고품격 뉴미디어 콘텐츠의 산실이 되기 위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의 이슈가 과거에는 어떻게 전개됐는지 짚어보는 '역사사지(歷+時事+志)' 코너, 〈SBS 8뉴스〉 단독 보도의 비하인드 취재기를 들어보는 '목동서로 161' 등을 새롭게 시작했다. 또 기존 동영상 뉴스에도 〈비디오머그〉만의 위트와 재치를 강화해 후발 브랜드들과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뉴미디어 뉴스 새단장...



그사람 론칭



SBS 보도본부 뉴미디어국과 디지털뉴스랩이 새로운 뉴미디어 콘텐츠를 잇달아 선보이며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에 나선다. 4월 26일(월) 공식 출범한 뉴미디어제작부의 유튜브 채널 <경제자유살롱- 밀스트리트>(연출: 심우섭)는 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한 투자 정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을 업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경제전문 채널이다. <밀스트리트>는 뉴욕 증권가 '월스트리트'에 '무엇'이란 의미를 더한 이름으로 월스트리트에 버금가는 전문 정보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 분야 취재에서 다년간 활약해 온 SBS 보도국 정호선, 손승욱 기자가 각각 모데레이터로 등장해 사람들의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대신 묻고 논쟁하는

방식으로 꾸며진다. 뉴미디어뉴스부는 유튜브 콘텐츠에 깊이를 더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강화하는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올 초부터 <SBS 뉴스> 유튜브 계정에서 시작한 '그사람' 코너는 윤춘호, 양만희 두 논설위원이 한 인물을 5시간 넘게 심층 인터뷰하여 한 시간 가량의 편집본으로 내보내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흥미 위주의 숏 폼(Short Form) 콘텐츠만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높은 조회수와 신규 구독자 유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선보인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 '이슈블랙라(이슈 블랙라운지)'(연출: 정연)는 구독자 취향을 존중하는 소통형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로, 정하석 논설위원이 이용

자를 대신해 초대 손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콘텐츠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였던 송영길, 홍영표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참여가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과 김웅 의원이 각각 대담을 가졌다. 3회 콘텐츠(나경원 편)의 경우 조회수 30만 이상을 기록했고 4회 콘텐츠(김웅 편)는 동시접속자 수 자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구독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현재 주 1회 오후 4시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시 부르는 희망가 **희망TV SBS** '2021 지금 다시 하나 되어'

<희망TV SBS> 코로나19 위기극복 프로젝트 '2021 지금 다시 하나 되어'가 5월 28일(금), 29일(토) 양일간 14시간 동안 생방송된다.

이번 <희망TV SBS>에는 IMF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을 위로했던 노래 '하나 되어'가 돌아온다. 당시 '하나 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옥주현, 이상민은 물론, 레드벨벳, NCT, 브레이브걸스, 인순이, 백지영, 김태우, 김재환 등 20여 팀이 '2021 지금 다시 하나 되어'에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국민을 위로한다. 음원이 선공개되자, "하나 되어 다시 부르기"가 인터넷상에서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음원 녹음 현장부터 '2021 지금 다시 하나 되어' 풀버전 뮤직비디오는 28일(금) <희망TV SBS>에서 공개된다. 음원 수익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연과 아젠더 제시

홀로 일하는 엄마를 위해 달린다는 사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재발굴단>의 9살 마라토너 김성군 군부터 일자리를 찾아 떠난 멕시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폐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오수길 씨의 사연까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들의 가슴 찡한 이야기가 소개된다. 또한,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시설을 나와 독립해야 하는 만 18세 보호종료 아동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아젠더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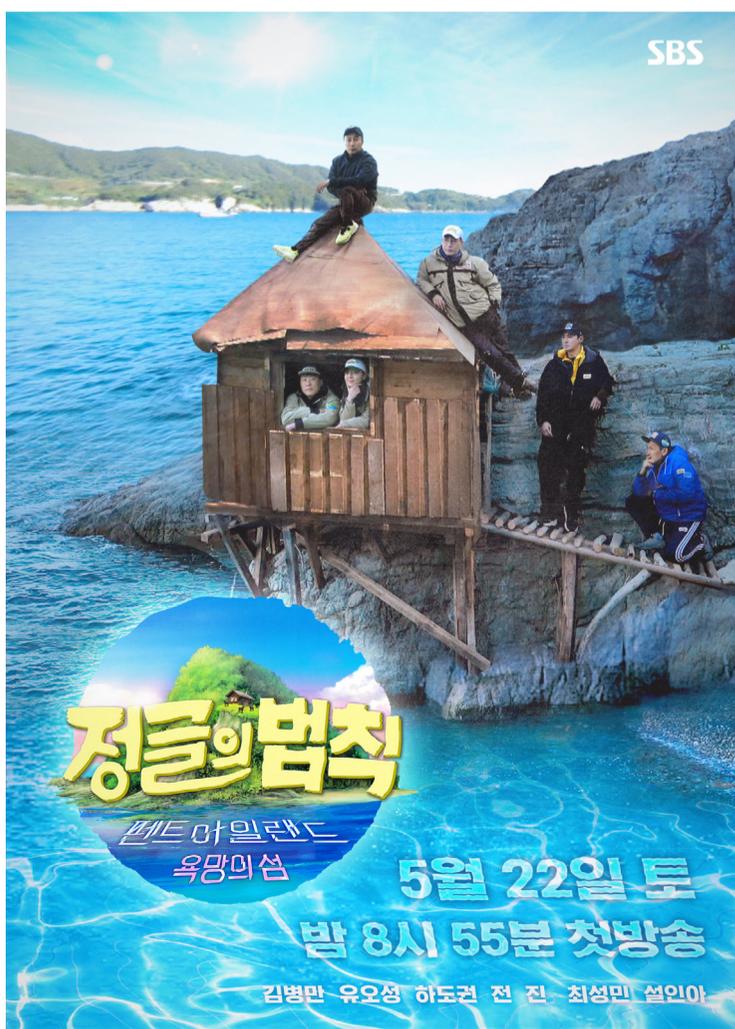
돈줄내러 가자! <희망으로 한 걸음 더 가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 와중에도 이웃을 돕는 착한 소상공인들이 있다. 전국의 숨어있는 착한 소상공인 중 다섯 곳을 '제대 희망으로 한 걸음 더 가게'로 선정. 가수 노라조와 함께 하나뿐인 맞춤 광고를 제작한다. 광고 영상은 선공개하여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착한 소상공인들이 돈으로 훈풍나는 '돈줄'의 현장은 <희망TV SB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부르는 '2021 지금 다시 하나 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아프리카 현지 취재로 나눔이 이룬 기적을 소개한다. 2016년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박미선, 아프리카의 축구 영재 킹스레이를 만났던 축구선수 조우진, 아프리카 전문 유튜버 송태와 함께 <희망TV SBS>가 만났던 아프리카 아이들의 후일담을 전한다. 또한, 아이들이 서툰 한국어지만 진심을 다해 부른 '2021 지금 다시 하나 되어 in 아프리카'는 5월 29일(토) <희망TV SBS>에서 공개된다.

국내편의 대미 **정글의법칙** -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정글의 법칙 - 펜트아일랜드: 욕망의 섬>(연출:김준수)이 5월 22일(토) 밤 8시 55분에 첫 방송된다. <정글의 법칙 - 펜트아일랜드>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통영의 외딴섬을 배경으로 각자 정글에서의 욕망을 한 장의 그림에 담고, 그대로 실현하는 상상생존에 도전한다. 즉장 김병만의 상상 속 절벽가옥부터 시작해 출연자들이 그린 다양한 상상 설계도와 현실 정글 생존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거 '폰페이' 시즌에서 돋보기로 노안을 이겨내고 첫 낚시에서 참치를 낚았던 유오성은 이번에도 돋보기의 힘을 빌려 대나무 낚시에 도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멕시코' 시즌에서 수중사냥에 성공하며 '인아공주'로 불렸던 설인아는 고무대야를 활용한 뗏목 위에서 수상 요가에 도전하며 진귀한 풍경을 자아냈다.

<펜트하우스>의 감초 배우 하도권과 열정 백만돌이 전진의 활약도 기대할 만하다. 무명시절부터 <정법> 출연이 꿈이었다는 하도권은 바다사냥과 요리 솜씨까지 뽐내며 정글을 만끽했다. 유오성과 뜻밖의 인연을 드러낸 전진은 첫 출연에도 정글에 빠르게 적응했다. 여기에 개그맨 최성민까지 합세해 바보 삼형제로 불리며 정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이번 편을 끝으로 <정글의 법칙>은 휴식기에 돌입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지난 10년간 <정글의 법칙>은 해외 37개국, 국내 11개 지역을 누볐다. 왕복 약 720,776km, 무려 지구 18바퀴에 해당하는 대장정을 57기의 병만족이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선보인 국내편은 색다른 재미로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재난 생존 '와일드 코리아'를 시작으로, 맨손 생존을 내세운 '생존의 달인', 폐가가 있는 마을을 개조해가며 생존하는 '개척자들' 등 다양한 시도로 재미를 주었다. 화제성과 경쟁력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이 최고 5.3%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 역시 12.2%까지 치솟는 등 명실상부 토요일에 강자다운 힘을 자랑했다. 동서남해를 비롯, 제주도와 울릉도까지 국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보여준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해외편으로 화려하게 돌아올 예정이다.

국내편 마지막 시리즈 '펜트아일랜드: 욕망의 섬'은 그래서 더 기대해도 좋다. <정법> 최초로 아슬아슬 절벽가옥에 도전하는 병만 즉장부터 모든 출연자들이 상상 이상의 '찐' 열정과 <정법>의 도전 정신을 그대로 보여줄 예정이다.



희망내일포럼 개최 - SBS 사회공헌사업 발전 방향 모색

〈희망TV SBS〉 주최 희망내일포럼이 4월 29일(목) SBS 목동 사옥 13층 SBS홀에서 개최됐다. 희망내일포럼은 이번이 두 번째로, 4년 전 개최된 희망내일포럼에서 제시한 'Collective Impact를 향한 미디어 CSR'의 현황과 사례 발표, 미래 전망 및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희망TV SBS〉는 1997년 〈기아체험 24시간〉 프로그램으로 한국월드비전과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시작했다. 전쟁과 빈곤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세계 곳곳의 현실을 국내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며 후원 기부 문화를 국내에 정착시켰다. 2011년 〈희망TV SBS〉란 이름으로 새 단장 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짓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물은 생명이다',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등 사회 이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굿피플, 초록우산, 밀알복지재단, 하트-하트재단, 함께웃는재단과 대한건축사협회, 아동권리보장원, 서플러스글로벌 등 국내외 대표적인 NGO들과 정부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최영주 아나운서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서울신학대학교 백선희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홍선희 건축사, SBS 성영준 부국장, 굿네이버스 황성주 본부장, 아동권리보장원 이선녀 부장이 'Collective Impact'의 국내외 사례 및 아동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성영준 부국장은 "이번 포럼은 〈희망TV SBS〉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히며, "〈희망TV SBS〉의 성과는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한 파트너 NGO들과 기업들, 후원자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SBS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희망TV SBS〉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제33회 한국PD대상 작품상 -〈선미네 비디오가게〉, 〈스토브리그〉



〈선미네 비디오가게〉 이한기, 추현검(프리랜서 PD)



〈스토브리그〉 정동윤

4월 23일(금)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33회 한국PD대상 시상식에서 〈SBS스페셜 - 선미네 비디오가게〉(연출: 이한기, 추현검/이하 〈선미네 비디오가게〉)가 TV 작품상 교양·정보 부문을 받았다. 또, 〈스토브리그〉(연출: 정동윤)는 TV 작품상 드라마 부문을 수상했다.

〈선미네 비디오가게〉는 잊고 있던 기억 속 영상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을 재발견하는 다큐멘터리와 토크쇼를 결합한 '아카이브 다큐멘터리'라는 새로운 형식을 선보이며 호평받았다.

〈스토브리그〉는 프로야구 꼴찌팀 드림즈를 배경으로, 노력한다면 그 과정조차도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작품성, 화제성, 시청률 모두 잡은 2020년 최고의 화제작이다. 한편, TV 작가상은 〈미운우리새끼〉의 육소영 작가, 탤런트상은 〈스토브리그〉의 남궁민이 수상했다.

제54회 휴스턴 페스티벌에서 〈스토브리그〉 등 5개 프로 수상

2021년 제54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씨돌, 용현〉과 〈스토브리그〉가 플래티늄상을 받는 등 SBS의 5개 작품이 수상했다.

다큐멘터리 부문 플래티늄상을 받은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씨돌, 용현〉(연출: 이큰별)은 1980년~90년대 현대사의 아픔이 있는 현장에서 존재했던 1953년생 용현 씨의 삶을 조명한 다큐로, '참 인간'의 고결한 삶을 발굴했다.

TV시리즈-드라마 부문 플래티늄상을 받은 〈스토브리그〉(연출: 정동윤)는 조직을 개혁하는 백승수 단장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생각해보게 했다.

〈TV 동물농장-은비를 부탁해〉(연출: 김규형, 소형석, 조성수)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한 할머니가 반려견 은비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아 TV스페셜 - 가족/ 어린이 부문 금상을 받았다.

〈맛남의 광장〉(연출: 이관원)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특산물 재배 농가에 새로운 판로와 특산물 활용법을 제시하여 엔터테인먼트 부문 은상을 받았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겪는 아픔과 성장을 그린 〈17세의 조건〉(연출: 조영민, 극본: 류보리)은 TV 스페셜-드라마 부문 은상을 받았다.



'장애인의 날' 맞아 감사패 받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상희 상임이사, SBS스포츠 김병삼 편성팀장

SBS스포츠는 지난 4월 20일(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상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상임이사는 "SBS스포츠가 시각장애인의 방송 시청권 신장을 위해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반영하고 실천하였기에 대한민국 시각장애인의 감사를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SBS스포츠는 매년 사내에서 '친절한 방송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시청층의 편익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왔다. 또한, 모든 '이어서' 방송 제작물에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덧입혀 시각 장애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SBS스포츠 김병삼 편성팀장은 "방송사의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패까지 주시니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월,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콘텐츠파트너십팀 심상대 부국장, 광고팀 박영래 차장이 6월부터 안식년을 맞이한다.



심상대 부국장은 시사교양국, 보도본부, 편성본부 편성팀을 거쳐 편성기획팀장, 외주제작팀장(콘텐츠파트너십팀장), 소셜미디어팀장, 심의팀장 등을 역임하며 SBS 성장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보도본부에서 PD와 기자의 콜라보 작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소셜미디어팀 설립을 주도하여 홍보마케팅 업무에 디지털 뉴미디어를 접목, 홍보마케팅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 2005년에는 창사15주년 기념 유공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온화하고 따뜻한 인품

으로 후배들에게 기억되는 심상대 부국장은 퇴직 후 전공인 사학을 살려 역사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



박영래 차장은 창사 초기(1991년) 현재 CMS팀의 전신인 데이터정보부로 입사하여 영상자료실에 근무하며 각종 영상자료 수집, 관리, 활용의 체계화를 통해 영상자료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2년 광고팀으로 자리를 옮겨 KOBACO 광고영업 관리, 간접/가상 광고 등의 업무로 광고 수익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는 광고팀 CM편집실에서 TV-CM 운행편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마지막까지 후배들에게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 주었다.